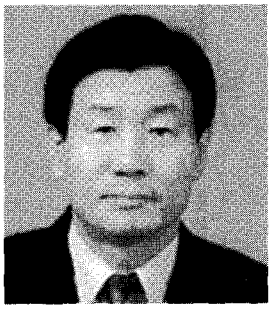
'96 국제 광학 및 사진 · 영상기자재전에 바란다

"'96 국제 광학 및 사진 · 영상기자재전이 성대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내 광학산업의 진면목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광학인 모두의 축제의 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글 : 이원승 사장/한국광학기술개발(주)

그 동안 중단되었던 국제 광학 및 사진 · 영상 기자재전이 금년에 다시 재개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축하해 마지 않는다.

서울 국제 광학기기전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1993년부터 약 3년간 중단되었을 때, 많은 뜻있는 광학인들이 안타까워했으며 전시회의 부활을 염원해 왔었다.

우리나라 광학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은 매우 낮은

'96 국제 광학 및 사진 • 영상기자재전에 바란다

것이 현실이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기 위해서는 광학산업과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또한 모든 선진국들이 광학기술분야를 앞다퉈 주도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본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일만달러 시대에 들어 섰고 산업구조나 소비패턴도 급속도로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부응, 광학제품의 수요도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학산업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고 관련 업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금번 전시회에서 한데 모아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광학산업과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앞으로 전시회가 정례화되고 개최규모가 확대되어 국내 광학산업 발전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국에서는 매년 많은 광학 전시회가 열려 세계적인 광학

> "
>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앞으로 전시회가
> 정례화되고 개최규모가 확대되어 국내 광학산업 발전에
>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면… 전시회를 통해
> 회사의 이미지와 상품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 광학산업의 발전된 모습을 우리 국민과
> 정책당국에 알림으로써 광학산업이
> 국가기간산업으로 빨리 자리잡을 수
> 있도록 해야 할터…….
> "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이 전시회를 통해 신제품 · 신기술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광학 및 사진 · 영상 기자재전도 전시회의 성격을 차별화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점차적으로 세계 유수의 국제광학전시회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외국의 유명메이커들도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수준 높은 전시회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국내업체와 광학 관련학회 및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금번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회사의 이미지와 상품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광학산업의 발전된 모습을 우리 국민과 정책당국에 알림으로써 광학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전시회가 성대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진면목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광학인 모두의 축제의 마당이 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